



“배터리 전해액 국산화...美·유럽으로 판로 확대”

(전기차용 리튬이온 전지)

전기차의 핵심은 동력을 전달하는 리튬이온 배터리다. 리튬이온 배터리에 들어가는 전해액은 사람으로 따지면 혈액의 역할을 한다. 혈액이 산소를 몸 곳곳에 운반해준다듯 전해액은 배터리에서 리튬이온이 원활하게 잘 흘러갈 수 있도록 한다. 2012년 설립된 엔컴은 일본산이 점령하고 있던 전기차 배터리용 전해액을 국산화했다.

◆배터리 성능 끌어올리는 전해액
오정강 엔컴 대표는 “엔컴이 제조한 전해액 ‘이라이트(Lyte)’를 사용한 배터리는 기존 경쟁사 제품을 사용했을 때보다 수명과 출력을 각각 30%, 20% 향상시킬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라이트를 사용하면 배터리의 양극과 음극 사이에 리튬이온의 이동속도를 높여 출력을 끌어올린다는 설명이다. 배터리 수명은 충전과 방전을 반복하면서 손실되는 부분을 얼마나 잘 복구하느냐에 따라 결정된다.

엔컴의 매출은 속속 증가했다. 지난해 매출은 337억원으로 전년보다 66% 늘었고 영업이익은 29억원으로 282% 급증했다. 올 들어 LG화학, SK이노베이션을 비롯해 중국의 리센, ATL 등 배터리 업체들의 주문이 크게 늘었다. 회사 측은 올해 매출 1000억원을 기대하고 있다. 약 3조2000억원으로 추산되는 세계 전해액 시장 규모를 감안하면 점유율은 3% 수준이다.



오정강 엔컴 대표가 충북 제천 공장에서 전기차 배터리용 전해액 생산공정을 설명하고 있다. 연합뉴스

전기차 배터리 성능 20~30% 향상
2012년 창업 후 전해액 국산화
수요 증가...올 매출 1000억 기대
폴란드 등 해외 생산기지 확보
6년 뒤 시장점유율 10% 목표

◆중기업 납품 후 국내 시장 돌파
아주대에서 화학공학을 전공한 오 대표는 제일모직에 근무하면서 휴대폰, 노트북 등 소형 정보기술(IT) 제품에 들어가는 리튬이온전지용 전해액을 국산화하는 작업에 참여했다. 이를 토대로 41세

던 2012년 엔컴을 창업했다. 그는 “전기차 시장이 커지면 전해액 시장도 급성장할 것으로 판단했다”며 “미쓰비시 센트럴글라스 등 일본 기업이 주도하는 시장에서 국내 중소기업이 기술독립을 해가는 자부심을 갖고 있다”고 강조했다.

국산화에 성공했지만 시장을 뚫기가 수월하지 않았다. 국내 대기업들도 외면했다. 오 대표는 리센 등 중국 기업에 납품하며 실적을 쌓았다. 2013년 LG화학을 시작으로 한국 대기업에도 납품을 시작하고 지난해부터 매출이 빠르게 늘면서 성장세를 이어가고 있다. 오 대표는 “현재자 동차 전체 판매량 가운데 전기차 비중은 2.5%에 불과하다”며 “2025년 15~20%까지

설립	2012년
본사	충북 제천시 왕암동
제품	전기차 배터리용 전해액 '이라이트(E-Lyte)'
특징	배터리 수명과 출력 각각 30%, 20% 이상 향상

늘어날 것으로 예상돼 전해액 시장도 그만큼 성장할 수 있다”고 전망했다.

충북 제천에 처음 지은 공장은 연 5000t 규모다. 지난해 충남 천안에 제천 공장의 네 배 규모인 연 2만t 규모 공장을 설립했다. 폴란드 서부의 브로츠와프에 생산 거점을 건설하고 있다. 미국 중서부 지역에 있는 공장 매입도 추진 중이다.

오 대표는 “LG화학 삼성SDI SK이노베이션 등 한국 전지업체 3사의 세계시장 점유율은 30%인 데 비해 한국 전해액 업체의 시장 점유율은 6% 내외에 불과하다”며 “선제적 투자와 기술 개발을 통해 2025년에는 세계 전해액 시장 점유율 10%를 달성해 1위에 오르겠다”고 강조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이달의 으뜸중기 제품’은 이메일(thebest@hankyung.com)로 신청 가능합니다. 한국경제신문 홈페이지(event.hankyung.com)를 참조하세요.

“반도체 부품 국산화 절호의 기회”

라온테크 김윤경 대표
日 규제에 대기업 실무진도 변화
국산 생태계 갖춰 상생해야

실현하는 대신 정부가 인증한 펌에서 제품의 신뢰성을 검증하고 보장해주기만 해도 중소기업 제품이 현장에 확산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이라 주장이다.

“일본의 수출규제가 반도체 장비·부품·소재 국산화의 좋은 기회가 될 것입니다. 과거와는 분위기가 다릅니다.”

반도체용 웨이퍼, 디스플레이 유리 등을 옮기는 산업용 로봇 생산업체 라온테크의 김윤경 대표(사진)는 지난 26일 경기 수원 본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같이 말했다. 미국과 일본 업체에 맞서 전공 상태에서 웨이퍼를 이송하는 로봇을 국내에서 유일하게 국산화한 기업이다.

김 대표는 과거에도 정부 및 대기업이 소재·부품·장비 국산화에 의지가 없었던 것은 아니라고 설명했다. 다만 책임 문제에 민감한 산업 현장의 실무진(엔지니어)에게까지 공감대가 형성되지 못했었는데 최근 엔지니어들이 변화하고 있다고 강조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 웨이퍼 한 장이 500~700개 공정을 거쳐 완성되다 보니 검증되지 않은 제품을 쓰는 것은 리스크가 큰 게 사실”이라며 “그래도 해외 제품보다 국산 제품에 더 엄격한 기준을 적용하고 공정한 기회를 잘 주지 않는 측면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대표는 반도체업체와 학계 등이 모여 정부 주도로 소규모 펌(Fab)을 설립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반도체 대기업의 대규모 생산시설에서

한양대 기계공학과를 나온 김 대표는

대우중공업(현 두산인프라코어) 로봇개발팀 동료 두 명과 함께 2000년 라온테크를 설립했다. 현재 생산하는 반도체 이송용 로봇은 깎거나 금속 물질을 입히는 공정에서 웨이퍼를 이동해주는 역할을 한다. 오차범위가 0.5mm에 불과할 정도로 정밀하게 제작된다. 이들 로봇은 주성엔지니어링, 테스, 원익PS 등 반도체 생산 장비 업체에 우선 공급된 뒤 SK하이닉스, 삼성전자 등 반도체 칩을 제조하는 대기업에 최종 납품된다. 올해부터는 중국 생산라인에도 사용되고 있다. 로봇 팔이 4개로 자위자제로 움직이는 쿼드 잔공 로봇은 이회사의 차세대 주력 상품이다.

김 대표는 “메모리 반도체 부문은 한국이 세계 1등이지만 글로벌 반도체 장비 시장에선 점유율이 10%도 안 된다”며 “외국 제품에 너무 의지하지 말고 ‘반도체 장비·부품’으로 이어지는 국산 반도체 생태계가 갖춰져 함께 성장해야 리스크도 줄어든다”고 강조했다.

라온테크는 직원 수가 77명 정도 지난해 매출 243억원을 기록했다. 이노비즈협회 회원사인 이회사는 내년 코넥스 시장에서 코스닥으로 이전장장을 준비하고 있다. 수원=문혜정 기자 selenmoon@hankyung.com



에이치엘비 “리보세라닙 임상 3상 성공적”

(경구용 항암제)

유럽중앙약학회 임상결과 발표

에이치엘비와 자회사 엘리비가 29일 스페인 바르셀로나에서 열린 유럽중앙약학회에서 경구용 항암제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시험 3상 결과를 발표했다.

임상시험은 2017년 2월부터 2018년 10월까지 미국, 한국, 일본, 대만, 영국 등 12개 국가, 88개 병원에서 위암 2차 이상 표준치료에 실패한 환자 460명을 대상으로 진행됐다. 리보세라닙의 무진행생존기간(PFS)은 2.83개월로 위암 3차 치료제인 론서프(2.07개월), 오피다보(1.6개월)보다 높았다. PFS는 약물 투여 중 종양 상태가 악화되지 않은 기간을 뜻한다.

각 제품 투여군(시험군)과 위약 투여군(대조군)의 PFS 기간 차이를 비교했을 때 리보세라닙 1.06개월, 론서프 0.2개월, 오피다보 0.16개월의 결과를 나타냈다. 에이치엘비는 리보세라닙이 약효의

무진행생존기간 2.8개월로 우수
백혈구감소증 등 주요 부작용 미미

내달 美 FDA와 사전 미팅 계획
리보세라닙 신약허가 받을 것

우수성을 나타낸 결과로 보고 있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위암 2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사이립자를 단독요법으로 사용했을 때의 PFS는 2.1개월, 시험군 대조군 차이는 0.8개월이었다”며 “이에 비해 리보세라닙은 암이 더 진행된 3차 이상 치료제 대상의 임상인데도 더 큰 PFS 수치를 보였다”고 설명했다.

부작용 면에서도 긍정적인 수치를 보였다. 심각한 부작용은 고혈압 17.9%, 수족중후군 2.9%, 단백뇨 7.5%로 관리가

능한 수준이었으며 세포독성항암제의 주요 부작용인 호중구감소증, 백혈구감소증은 거의 발생하지 않았다.

에이치엘비는 오는 10월 미국 식품의약국(FDA)과 신약허가 신청을 위한 사전 미팅을 해 리보세라닙의 허가를 추진할 계획이다. 에이치엘비 관계자는 “글로벌 임상시험에서 다시 한번 리보세라닙의 안전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며 “기존에 위암 3차 치료제로 허가받은 론서프에 비해 충분한 임상적 유의성을 증명했다”고 설명했다.

진양근 에이치엘비 회장(사진)은 이날 회사 유튜브 채널을 통해 리보세라닙의 글로벌 임상 3상 성공을 선언했다. 진 회장은 “글로벌 3상 임상 시험의 최종 목적은 신약 허가이고, 이를 위해선 신약 허가의 유효성과 안전성, 기존 약물을 뛰어넘는 효능이 있어야 한다”며 “리보세라닙은 FDA의 신약허가 경향성에 부합한다고 판단한다”고 주장했다.

박상의 기자 dirn@hankyung.com

꺾이지 않는 벤처투자 열풍... 사상 최대 행진

올들어 8월까지 2조8000억원

올 들어 지난해까지 신규 벤처투자액과 벤처펀드결성액이 역대 최고를 기록했다.

중소벤처기업부와 한국벤처캐피탈협회는 8월까지 신규 벤처투자액이 작년 같은 기간보다 25.5% 증가한 2조7944억원, 벤처펀드결성액은 13.8% 늘어난 2조1840억원을 기록했다고 29일 밝혔다.

신규 벤처투자액은 일평균 3년 이하

가 33.1%, 3년 초과 7년 이하가 41.4%로 창업 7년 내 투자가 74.5%를 차지했다. 벤처 시장에 모험투자가 계속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생명공학 관련(30.2%) 비중이 가장 높았으며 정보통신이 25.4%, 유통·서비스가 16.8%로 뒤를 이었다. 증가분은 최근 매일 4000억원가량 벤처투자가 이뤄지는 점을 감안해 10월 말이면 작년 연간 벤처투자액(3조4000억원)을 넘어설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서기열 기자 philos@hankyung.com

모십니다

광장·환경 법률최고위과정... 법적 리스크 선제적 대응방안 제시

경제 구조가 복잡해지고 급변하면서 기업의 법률적 리스크가 커지고 있습니다. 한국경제신문사는 지난 8월 21일자에 기업 CEO(최고경영자) 되는 순간 315개 형사처벌 대상 된다는 기사를 1면 머릿기사로 신기하게 했습니다. 광장·환경 법률최고위과정은 4차 산업혁명시대 경영환경 변화에 따라 필연적으로 수반되는 법률적 리스크에 선제적으로 대응할 수 있는 솔루션을 제공할 예정입니다. 더불어 기

업 및 공공기관의 CEO와 임원진의 범부역량을 높여줄 것입니다.

●일시: 2019년 10월 22일~12월 10일(매주 화요일 오후 4~7시) ●장소: 서울 포시즌스 호텔 멤버십라운지(서울 광화문) ●주요 내용: 개인정보규제, 경영자 형사리스크 예방전략, 국내외 행정기관 규제 및 조사 대응책, 공정거래분야 새로운 규제 방향과 대응, 노동분야 새로운 리스크 이해와 관리, 경영권과 지배력의 강화·방어·승

계 등 ●강사: 범부법인 광장의 전문 변호사 및 각 분야 전문가 ●대상: 대기업 및 중소기업 CEO, 2세 경영자, 공공기관 및 기업 임직원 등 ●특징: 법률 자문 변호사를 지정해 멘토링 방식으로 기업 맞춤형 솔루션 제시 ●마감: 10월 18일(접수·평가 후 합격자 개별통보) ●교육비: 490만원(부가가치세 없음, 광장 및 환경 회원사 450만원) ●문의: (02)360-4049, 자세한 내용은 ‘환경이카데미’ 홈페이지 참조

주최: 범부법인 광장·한국경제신문

노란우산공제

소기업·소상공인이
행복한 대한민국

대한민국 사장님의 희망자산
노란우산공제가 언제나 응원 하겠습니다

절세혜택

납입부담은 최대 연 500만원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고객복지·가입장려금

상해보험(건강), 경영자문, 유망사업 등 복지서비스 이용과 지자체 가입장려금을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압류금지

공적공은 법률로 압류가 금지되어 사업이 실패할 때에도 보호받을 수 있습니다

복리이자

별도 사업비를 책지 않고 납입부금 전액에 연 복리이자 적용되어 목돈을 마련할 수 있습니다

선착순 모집

2019 노란우산 희망·미래지킴이과정
소상공인 교육 안내

- 대상: 소기업·소상공인 대표자
- 일정: 2019년 6월~12월, 70회 교육(4주)
- 장소: KBIZ 중소기업인력개발원(경기도 용인 소재)
- 내용: 책임자 및 자기교육, 사업역량 강화 교육 등
- 혜택: 교육비용 전액무료, 교육수당 5만원 지급(80% 이상 우수자)

※노란우산공제 홈페이지(www.8899.or.kr) 소기업인교육 신청

가입문의 **1666-9988** www.8899.or.kr

Google play / 애플 앱스토어에서 노란우산공제를 다운로드 받으세요!

KBIZ 중소기업중앙회